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대선정국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 세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公約)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나같이 장밋빛 일색들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하루가 멀다 하고 경쟁적으로 발표되다보니 사실 누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도 헛갈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 간의 정책적 차별성이나 이념적 지향점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세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경제민주화 사회에서 부상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 말 그대로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어느 누가 이를 마다 할 것인가?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전문화적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심공약’ 구업 될까 걱정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여야의 세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집권 5년 동안 최소 75조원에서 최대 170조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금인상과 같은 그나마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연간 8조 5000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임기 중에 적어도 30조원에서 많게는 120조원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한 여야 세 후보의 대답은 한결 같이 공색하기만 하다.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기 일쑤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 후보들의 ‘공약(公約)’이 발음은 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공약(空約)’이 될지도 모를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유권자인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몰려 있을 뿐 차후의 실질적인 절차들은 그야말로 ‘나중에 두고 볼 일’쯤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어떤 후보는 일단 저지르고 난 뒤 당 선되고 나면 소위 정권인사위원회에서

상황의 변화와 현실적인 이유 등을 들어 적당하게 수정 또는 유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글자 그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무거운 책임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 행위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표적인 선거공약이 구체적 실현 가능성과 거리가 먼 선심성 공약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공약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듣기 좋은 빈발 정도로 치부되거나 양태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곧 ‘공약(公約)’이 ‘공약(空約)’과 동일시되는 거짓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날의 세계는 바야흐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행위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른바 ‘윤리라운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이윤만 추구하던 사기업들도 이제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윤리’의 개념을 서둘러 접목시키고 있는 추세는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른바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부르짖는 소비자들의 세련된 지출욕구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마당에 지방의원 보궐선거도 아니고 향후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 최고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벌써부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도덕적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의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만 더, 불교윤리에서는 몸(身)과 입(口)과 마음(意)으로 짓는 업(業)의 과보를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의 공약은 최소한 남을 현혹시키는 행위인 ‘가어(誇語)’ 내지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망어(妄語)’의 ‘구업(口業)’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야의 대선 후보자 가운데 ‘불자(佛子)’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왠지 그들이 받을 과보가 걱정되는 것은 한 순간의 불자의 절없는 자비심 때문일까?

社說

불교계 근대문화유산 발굴 나서자

불교계가 근대 등록문화재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등록문화재 제도 분석 및 근대문화재 목록화 사업’을 추진·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부는 공주 신원사 소림원 불입상, 광주 원효사 아마타 후불탱, 진주 의곡사 패불을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등록문화재에 올릴 예정이다. 그간 불교계는 근대문화유산에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불교문화재가 한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을 정도로 유구한 시간을 지냈고, 그 가치 또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근대 불교문화유산들은 ‘일제의 잔재’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 3월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시작된 등록문화재 제도의 최

대 수혜자는 기독교였다. 12년 동안 시행된 사업에서 총 5백여 건의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고, 그중 39건이 기독교 유물, 유적들이다. 반면, 불교 근대 등록문화재 6건이 지정되는 데 그쳤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 사업과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은 그간 미비했던 불교계 근대 문화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불교계도 전향적인 역사 인식 개선과 관련 연구를 통한 근대 문화 발굴이 필요하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를 영광스러운 순간만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한국 사회에서 근대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까닭도 여기 있다. 영광보다는 아픔과 상처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역시 근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치 못했다. 근대는 현대를 잇는 연결고리와 같다. 근대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20주년 맞은 불교언론문화상

우리는 지금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 24시간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미디어를 접하고 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20년 전 신문 방송을 포함해 다섯 개 매체에 불과하던 불교 언론도 이제는 10여개로 늘어났다. 또한 불교계의 이슈들은 과거와 달리 일간지나 공중과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등 전파력과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졌다. 또한 스님들을 비롯한 불교계 종사자들도 불교를 포교하고 홍보하는데 언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교계 언론이 급성장하고 불교계 동향이 일반에 파급 효과를 갖게 되는데 불교언론문화상의 역할도 한 몫 단단히 했다. 이런 불교언론문화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명실공히 불교계의 대표 언론상인 불교언론문화상을 한 불자의 열력으로 시작됐다. 그가 바로 환속 후 KBS방송작가로 살던 김갑재일 보리방송모니터회 회장이다. 언론의 종교편향 행위를 감시해 오던 김 회장은 불교계 언론 발전을 위해 1992년

‘보리방송문화상’을 만들었다. 이 상은 1993년(회)부터 2004년(12회)까지 같은 이름으로 방송부문만 시상해 오다, 2005년(13회)부터 불교언론인상과 신문 및 출판 부문을 신설하는 등 시상 내역을 넓혔고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 운영하며 이름을 불교언론문화상으로 바꿨다. 그동안 2007년 대상 ‘차마고도’, 2009년 대상 ‘출가, 그 후 10년’, 2008년 신문부문 최우수상 하늘이 감춘 땅, 라디오부문 최우수상 BBS거북한만만 900회 등 불교를 널리 알린 작품들을 포함해 수상작들만 해도 120여건에 달한다. 불교언론인상에도 前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비롯해 석성우 불교TV 회장 스님, 이은우 前 금강불교신문 사장, 이계진 前 국외인명,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이사 등 8명이 수상했다. 원래 상별에는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며 불교언론문화상은 훌륭히 운영돼 왔다.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

사부대중 갈림



주경 스님 서산 부석사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범안)가 11월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종교와 불교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종교계에 대한 신뢰도 5.4%,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불신 76.6%, 종교 본연의 치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시각 46.9%, 한국 종교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덕목은 ‘도덕성’이 32.1%로 1위이다. 95%의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뭔가 여론조사의 과정이나 내용에 실수나 오류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꼼꼼하게 설문지를 들여다보니 설문에 대한 답문항의 순서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종교의 순서를 배치하는데

“종교 불신시대, 부끄럽습니다”

있어서도 부여된 차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는 없다.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만의 함정이 있다. 자신들이 굉장히 존경받고 신뢰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이다. 불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승려와 사제와 목사들 앞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도들이다. 또한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도들은 독실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에게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절대나 절대적인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여 종교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예배와 성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종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함정에 빠져들곤 한다. 독실한 신앙인도 때로 함정에 빠진 종교인들의 위선과 가식, 교만함과 무지함에 고개를 젓기도 한다. 그러나 다만 표현하지 않고 외면할 뿐이다. 이런 여론조사결과에 함정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종교에 의지해 있는 사람

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범당과 성전에서 “믿습니다”는 말을 수없이 외치고 외우는 사람들이 보내는 신뢰가 5.4%라는 것에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시민단체(NGO)에 대한 34.3%의 신뢰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과 신자들이 보이는 냉정하고 싸늘한 속마음인 것이다. 문득 ‘백성은 약하지만 이길 수 없고, 백성은 어리석지만 속일 수 없다’는 옛 말씀이 가슴을 때린다. 자비와 사랑을 외치며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종교인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기운이 맑고 따뜻하지가 않고, 도덕적으로 청정성이 의심스러우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느낄 때 신자들과 국민들은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는 것이다. 자신을 속일 수 없듯이 대중 또한 속일 수 없다. 대중의 눈은 자신의 눈보다 더 넓고 깊게 자신을 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수행자와 성직자들은 남의 잘못이라도 자신이 대신 저출 수 있어야 하는 사

람들이다. 종교가 가지는 본연의 뜻이 그러하고 신자들과 대중들이 바라는 바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잘못과 허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세상과 사람, 생명을 위하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뒤로하고, 교세를 키우기 위한 큰 건물과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세속적 욕망과 타협이 종교를 불신하고 외면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 스님들은 세상에 혼란과 고통이 생길면 자신들이 수행을 잘 못한 까닭이라고 스스로 참회하고 수행에 간절한 힘을 더하곤 하였다. 이러한 정신이 한국불교를 1700여 년 동안 이끌어 온 동력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으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하지 않는다면 돌아선 신자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저 하나의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깊은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종교와 세상의 양쪽에 갇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교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례)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신제품
MSM Glucosoid & Omega3 Cream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로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120ml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능 효과 ◎
▶ 잇몸질환 예방 ▶ 구취 제거
▶ 치주질환 예방 ▶ 시린 이 개선
▶ 충치예방 ▶ 미백효과
▶ 치태제거
200g ×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